

한국칸트학회 2023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신진 칸트 연구자 발표

일시: 2023년 12월 9일(토), 13:00~18:00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7층 31709호

한국칸트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국칸트학회 2023년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인문교육연구소와 공동 주최 하에 신진연구자 발표로 진행합니다. 아래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각 발표의 초록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정기총회를 겸하는 자리인 만큼 칸트학회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칸트학회 배상

회장 : 김한라

부회장 : 이진오, 이원봉

편집이사 : 강지영

연구이사 : 김형주

총무이사 : 오창환

학술교류이사 : 백승환

편집간사 : 정선아

총무간사 : 신창화(010-3834-7382)

회비계좌 : 우체국 501072-02-293482 오창환

한국칸트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ntgesellschaft.co.kr>

한국칸트학회(편집부 & 총무부) 이메일 : kantsarag@naver.com

<한국칸트학회 연회비 안내>

전입: 5만원 / 비전입: 2만원

한국칸트학회는 다른 외부 지원금 없이 학회 회원 선생님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로 학회 운영에 힘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칸트학회 2023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칸트학회 신진연구자 발표

- 일시: 2023년 12월 9일(토), 13:00~18: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7층 31709호
- 주최/주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인문교육연구소/한국칸트학회

	시 간	대회 내용	사 회
	13:00-13:10	등록	
	13:10-13:20	개회사 김한라 (한국칸트학회장)	오창환 (전남대)
1부	[제1발표] 13:20-14:05	벡터적 측정 이론으로 해석된 『순수이성비판』의 수학적 원리들 ◆ 발표 : 신창화 (서강대) ◆ 토론 : 이병덕 (성균관대)	이정규 (성균관대)
	[제2발표] 14:05-14:50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도덕성의 최상원리 문제 : 『실천이성비판』 ‘분석론’ 구성에 대한 하나의 해석 ◆ 발표 : 추교준 (전남대) ◆ 토론 : 강지영 (서울시립대)	
	14:50-15:00	휴 식	
	[제3발표] 15:00-15:45	자율적 행복론을 위하여 : 칸트 윤리학의 현재와 미래 ◆ 발표 : 이철우 (계명대) ◆ 토론 : 김종국 (경인교육대)	이정규 (성균관대)
	15:45-16:00	휴 식	
2부	16:00-17:00	종합 토론	백승환 (강릉원주대)
	17:00-17:10	휴 식	
3부	17:10-17:50	한국칸트학회 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오창환 (전남대)
	17:50-18:00	폐회사 김한라 (한국칸트학회장)	

* 각 발표당 발표시간은 35분, 토론시간은 10분 내외로 배정되었습니다.

한국칸트학회 2023년 동계학술대회: <칸트학회 신진연구자 발표>
발표 초록

[제1발표]

벡터적 측정 이론으로 해석된 『순수이성비판』의 수학적 원리들

신창화(서강대학교)

본 논문은 『순수이성비판』의 「원리의 분석론」장에서 제시된 두 수학적 원리, 즉 직관의 공리(Axiomen der Anschauung)와 지각의 예료(Anticipationen der Wahrnehmung)를 벡터적 측정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가진다. 이때 제시된 두 수학적 원리들을 ‘벡터적 측정 이론’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의미를 가진다 : 1) 수학적 원리들은 감각적 대상, 혹은 칸트의 용어법으로는 현상(Erscheinung)에 수를 할당하는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측정의 가능성을 정초한다; 2) 수를 할당받는 각각의 현상은 벡터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표상될 때에만 수를 할당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수학적 원리들, 즉 직관의 공리 및 지각의 예료 장과 도식론에 대한 상세한 해석적 작업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획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1장에서는 수학적 원리에 관한 해석적 지형을 간단하게 살피면서,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하는 수학적 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본 논문이 전반적으로 취할 입장을 개괄한다. 2장에서는 수학적 원리들에 대한 예비적 접근이 『순수이성비판』의 도식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수행된다. 3장과 4장에서는 도식론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답하면서 직관의 공리와 지각의 예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수학적 원리들을 논의하며 언급되는 양적 대상(quanta) 개념이 현대의 벡터 개념에 상응함을 밝히며, 나아가 6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반영하여 측정에 관한 현대 과학철학의 논의들과 가지는 관련성을 살핀다.

[제2발표]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도덕성의 최상원리 문제 : 『실천이성비판』 ‘분석론’ 구성에 대한 하나의 해석

추교준(전남대학교)

이 글의 목적은 칸트의 두 번째 도덕철학 저서인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788)의 ‘분석론’(Analytik)의 구성에 대하여 하나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칸트의 ‘분석론’의 각 장이 정확히 ‘입법’(Gesetzgebung), ‘판정’(Beurteil), ‘실행’(Execution)이라는 삼권분립적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실천이성비판』 ‘분석론’의 구성을, 칸트 자신이 직접 제시한 ‘실천적 이성추리’(praktische Vernunftschlüsse)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칸트는 실천적 이성추리라는 개념으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이성추리를 실천적으로 고찰했을 때, ‘입법’, ‘사법’, ‘행정’의 구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분석론’의 1장은 입법의 문제로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문제’를 다루며, 2장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로서 ‘법칙의 대상으로서 선, 악 개념을 판단하는 문제’를, 3장은 도덕적 행위의 문제로서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동기부여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 드러난다.

두 번째 부분은, 이처럼 ‘분석론’의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의 구조를 지닌다고 할 때, 이를 통해 칸트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도덕성의 최상 원리’(oberste Prinzip der Sittlichkeit)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760년대 전비판기에서부터 1780년대 비판기에 이르기까지 칸트가 자신의 도덕 철학에서 주요한 문제로 설정한 것이 바로 도덕성의 최상 원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760년대 칸트의 주요 저서와 헤르더의 『도덕철학 강의 필기록』, 1770년대 포발스키의 『실천철학 강의 필기록』, 1780년대 『도덕형이상학 정초』의 주요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칸트의 실천 철학 곳곳에서 제시되는 입법, 판정, 실행이라는 도덕성의 삼중 구조는 케어슈팅(Kersting), 회페(Höffe) 등이 주장하듯 단순히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의 영향만이 아니라 칸트 자신이 1760년대부터 숙고해왔던 ‘도덕성의 최상원리’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이 『실천이성비판』 ‘분석론’의 구성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이 확인된다면, 삼위일체-삼권분립으로서의 신을 정점으로 하는 보편적 공화국(도덕적 세계)를 형성하는 이성적 존재자, 즉 인격에 대한 확장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제3발표]

자율적 행복론을 위하여: 칸트 윤리학의 현재와 미래

이철우(계명대학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칸트의 '자율 도덕'과 고대 그리스 윤리학의 주제이던 '행복'을 포괄하는 도덕체계를 '자율적 행복론'이라는 이름으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것은 1970년대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을 통한 실천철학의 복권에서 야기된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의 근거지움의 프로그램과 목적론 일반, 특히 고대 그리스의 '도덕에 상응하는 행복' 내지 '덕의 활동에 따른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의 대립적 구조를 극복하여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바탕하고 있는 칸트의 의무론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는데, 첫째는 칸트에게서 좋은 삶의 추상으로부터 가능한 정언명법을 통한 도덕의 근거지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을 윤리학의 중심 테마로 다시 설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전자에서는 도덕의 근거지움에 있어서 좋은 삶의 의미가, 후자에서는 좋은 삶에 있어 도덕이 갖는 의미 즉 좋은 삶의 윤리학적 시각의 복권이 논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칸트의 자율 도덕에서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철학적 반성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어떻게 자율 도덕의 틀 안에서 철학적 행복론이 가능한가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오프리트 회페(Otfried Höffe)에게서 '자율'과 '행복'의 행위론적 연결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칸트의 최고선에 관한 이론을 자율 도덕의 틀 안에서 통합된 좋은 삶의 윤리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적 좋은 삶의 물음의 자율 도덕적 완성이라는 시각에서 '자율적 행복론'으로 해석하여 볼 것이다.

이런 해석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저 자율적 행복론은 결코 칸트의 의무론적 자율 도덕의 근거지움의 프로그램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트에게서 도덕의 자율적 정초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기 때문에, 가령 루이스 화이트 벡(L. W. Beck)에게서 처럼 최고선이 도덕적 동기로 역할 하는가 여부에 따라 그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도덕의 근거지움의 프로그램에서 완결된 자율 도덕이 철학적 삶의 기술론의 중심 주제이던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는가 여부와 정도에 대한 물음이다. 이것은 이미 니체의 도덕비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 자율적 행복론에서 중심이 되는 물음은 '도덕이 행복으로 인도하여주는가? 그렇다면 얼마만큼인가?'이다. 말하자면 도덕적 행위의 행복론적인 의미, 즉 삶의 의미가 주제이다. 이 경우 칸트에게서 자율 도덕은 좁은 의미의 도덕철학적 근거지움에 관한 '윤리이론적 방식'이 아닌 '행위론적인 방식'으로 최고선의 물음에 이르게 된다. 즉 도덕적 선은 어디에서 존립하고, 이 도덕적 선에 따라 행위 해야 할 동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저 동기에 따라 도덕적 선을 행하였을 때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도덕과 행복은 윤리-필연적 조건 관계를 갖게 되어 칸트에게서 '도덕적 삶의 행복론적 의미'를 윤리적 물음의 대상으로 갖게 되는 '자율적 행복론'이 정립될 가능성이 열린다.